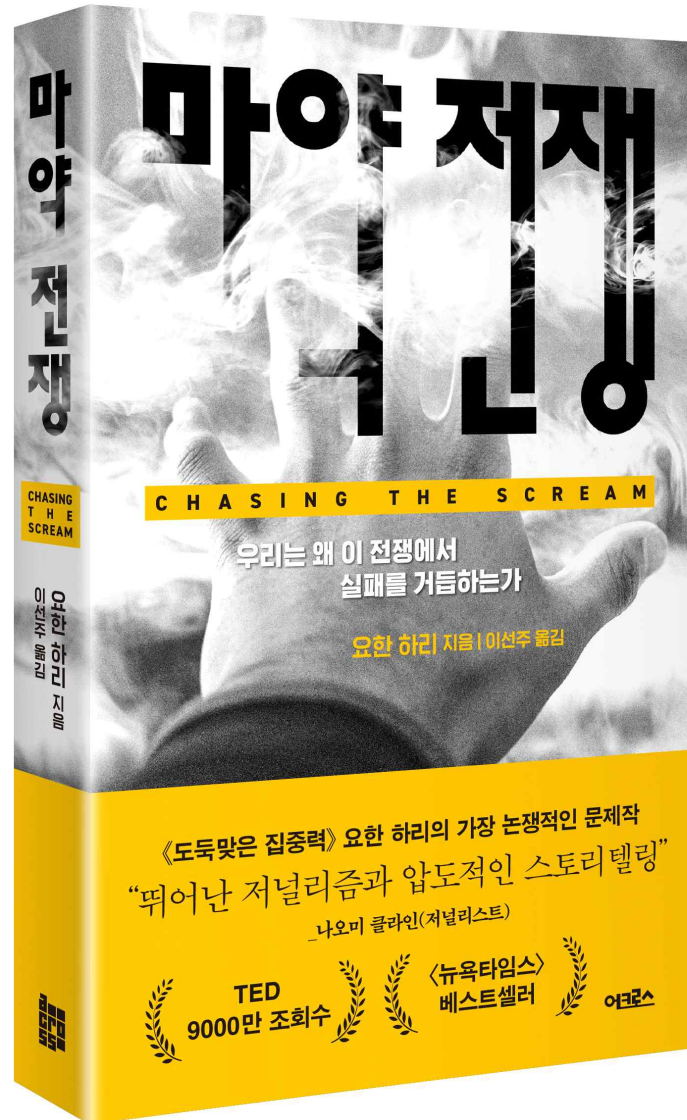




마약 전쟁

우리는 왜 이 전쟁에서 실패를 거듭하는가

요한 하리 지음, 이선주 옮김

2025년 9월 10일 출간 | 판형 135×215 | 456쪽 | 22,000원 |

분야: (주조)인문>교양 인문학, (부조)사회과학>사회문제 | ISBN 979-11-6774-230-8 03330

책소개

우리는 왜 마약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거듭하는가

마약과 중독을 바라보는 해묵은 시선을 뒤흔드는 도발적 문제제기

사람들은 ‘마약 전쟁’의 목적이 마약 사용을 예방하고 중독자들을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시작은 전혀 달랐다. 20세기 초, 미국이 마약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마약국은 범죄의 경중과 마약의 사용처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용자를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합법적 마약을 처방한 의사들마저 체포되는가 하면, 유명한 헤로인 중독자였던 재즈가수 빌리 홀리데이는 표적수사의 대상이 되어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방식이 ‘처벌’이라는 이름의 전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서막이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는 마약으로 인해 삶이 뒤바뀐 중독자, 10대부터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멕시코의 마약상, 중독의 화학적 기전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와 생물학자, 각종 마약 복용을 비범죄화하도록 정책을 바꾼 포르투갈의 한 의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약물 중독 문제를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들려준다. 처벌과 단속에 의존해온 낡은 방식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중독은 약물의 화학적 속성보다는 상실·고립·사회적 단절에서 비롯된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마약을 둘러싼 공포와 오해 그리고 수많은 실패의 역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진지하게 제시하며, 우리가 마약과 중독에 대해 가지고 있던 해묵은 생각들을 뒤흔들어 놓는다.

차례

한국어판 서문: 우리의 생각과 아주 다른 이야기

1부 전쟁의 서막

1장 중독자, 범죄자 그리고 단속자: 마약 전쟁의 중심에 선 세 인물

비명을 쫓아서 |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던 것 | 검은손 | 빅터 리카타의 결정적 사건 | 재즈와의 전쟁 | “이 노래는 멈출 수 없어요” | 인종차별과 마약 전쟁

2장 미래를 예언한 의사: 마약이 금지되자 벌어진 일

의사들이 체포되다 | 중독자를 위한 처방전

3장 해리의 총구가 향한 곳: 그는 유령이 되어서도 이 전쟁을 지휘한다

세계로 뻗은 마약국의 그림자 | 이데올로기의 몰락

4장 아무도 그들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다: 세상을 길들인 마약상

뉴욕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 | 마약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2부 반복되는 역사

5장 전쟁터에서 자란 ‘말썽꾸러기들’: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세계

전쟁의 실시간을 목격하다 | 악명을 쌓기 위한 폭력 | 살아남기 위해 한 선택들 |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마약에 취했다 |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6장 마약상을 체포하면 왜 살인이 증가할까?: 마약 범죄의 특이성

KKK단에 잠입한 경찰관의 사연 | 마약 거래가 줄어들 수 없는 이유

7장 소용돌이의 피해자: 그들은 '버섯들'이라 불린다

8장 살기 위해 도망친 살인자: 마약 카르텔 내부의 이야기

천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 | 서서히 '인간 무기'가 되다 | 살인자의 질문

3부 중독의 숨겨진 진실

9장 기분을 바꾸려는 욕구: 동물들도 마약에 취할까?

슬픔에 빠진 몽구스가 한 선택 | 제4의 욕구

10장 중독의 원인에 대한 수수께끼: 우리가 알던 중독의 시나리오는 틀렸다

무엇 때문에 중독되기 쉬운 사람이 되는가 |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미치는 영향
| 모두 중독자가 되지는 않는다

11장 '화학적 노예'라는 허구: 중독과 화학물질의 상관관계

중독은 '질병'이 아니다 | 인간은 왜 중독에 빠지는가 | 마약의 증가 vs. 단절감의 심화 | 신체적 의존성과 중독의 차이

12장 헤로인을 처방하겠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관문

예방은 존중에서 시작된다 | 스테이크 대신 반죽 덩어리를 먹어야 한다면 | 중독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결정

13장 1974년, 혁명의 정신으로: 마약의 비범죄화를 선언하다

포르투갈의 가장 급진적이고 대담한 시도 | 중독 치료의 핵심 | 마약 혁명 이후 | 모순에 대한 해답

마치며: 중독의 반대말

저역자 소개

요한 하리(Johann Hari)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사회과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가디언> 등에 글을 기고해왔다. 약물 중독, 정신 건강, 주 의력 결핍, 비만 치료제 등 현대 사회와 인간 본성에 관한 민감한 주제를 파고들어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다.

2023년 출간한 <도둑맞은 집중력>은 현대인의 집중력 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집중력 문제의 이해와 해결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에서만 3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독자와 서점 그리고 언론이 선정한 올해의 책 1위에 올랐다. 또한 현대 의학의 최전선에서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신종 비만 치료제'를 둘러싼 식품 산업, 다이어트와 의지력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매직필> 역시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마약 전쟁>은 요한 하리를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의 대열에 올려놓은 그의 첫 번째 책으로,

2015년 현지에서 출간된 뒤 미국에서 마약에 관한 논의를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영화 <빌리 홀리데이(The United States vs. Billie Holiday)>로 제작되었다.

윤킨이 이선주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공부했다. <조선일보> 기자, 월간지 <톱클래스> 편집장을 지냈다. 현재는 바른번역 소속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 <히틀러를 선택한 나라>,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100가지 식물로 읽는 세계사>, <도슨트처럼 미술관 걷기>, <혼자 보는 미술관> 등이 있다.

책 속에서

해리는 대마초에 대해 갖가지 질문을 던지는 편지를 과학 전문가 30명에게 보냈다. 그중 29명이 대마초 금지는 옳은 방법이 아니며, 언론이 대마초와 관련해 대단히 잘못 전하고 있다고 답장했다. 앤슬링어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기로 마음먹고, 대마초는 엄청 위험하므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믿는 한 전문가의 말만 인용했다. _36쪽, 1장 <중독자, 범죄자 그리고 단속자> 중에서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싶을 때 그 두려움을 어떤 상징으로 바꾸고, 그다음 그 상징을 파괴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그런 일은 십자군전쟁부터 마녀사냥, 그리고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 내내 되풀이되고 있다. 마약에 취하려는 인간의 충동처럼 복잡한 문제를 곰곰이 따져보면서 그 충동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언제나 어떤 문제들(그리고 어떤 쾌락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그 문제를 끝낼 수 있다는 다른 이야기를 훨씬 더 듣고 싶어한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한다. _100쪽, 3장 <해리의 총구가 향한 곳> 중에서

치노가 자신이 몸담았던 세계를 설명하는 동안 나는 외부인의 눈에는 비이성적이고 이상야릇하게 보이는 빈민가 문화의 일부, 즉 자기 구역에 집착하면서 끊임없이 '존경'을 강요하는 행태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행태가 비이성적이지만은 않다고 여기게 되었다. 가장 귀중한 재산인 마약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일 것 같았다. 법에 전혀 의지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며 자기 구역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확실히 단속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존경심과 두려움을 강요하는 방법이 이런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지역의 경제가 이 같은 규칙들로 굴러간다면, 그 규칙들이 그 지역 주민들, 어렵사리 마약 거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지배하게 된다. _159쪽, 5장 <전쟁터에서 자란 '말썽꾸러기들'> 중에서

이 인터뷰의 녹음을 나중에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듣고 난 뒤 문득 내가 치노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사회학자 필리프 부르구아의 논문이 떠올랐다. 그는 마약이 금지되었을 때, 가장 먼저 도덕적 제약을 버리는 사람이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마약시장을 더 많이 장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약 카르텔은 그래서 거리낌없이 그 청소년 '소모품들'을 이용해

경쟁 카르텔 직원들뿐 아니라 그들의 친척까지 잔인하게 죽인다. _230쪽, 8장 〈살기 위해 도망친 살인자〉 중에서

나는 마약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유엔의 약속에 대해 계속 다시 생각했다. 내 마음속에는 그 약속과 관련해 다른 무엇보다 한 가지 사실이 자리잡고 있었다. 처음에는 분명하면서도 직감적으로 틀렸다고 느끼게 되는 사실이다. 마약 사용자 중 10퍼센트만이 마약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킨다.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90퍼센트 정도, 압도적인 다수는 마약으로 해를 입지 않는다. 마약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내놓은 수치가 아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전 세계적으로 지휘하는 유엔 마약통제국에서 내놓은 수치다. 미국 마약 통제정책국 국장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마약정책을 펼치며 ‘마약 황제’로 불렸던 윌리엄 베넷조차 “우리 나라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마약에 중독되지 않은 사용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인정했다. _249쪽, 9장 〈기분을 바꾸려는 욕구〉 중에서

어릴 때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떻게 중독이 되는 걸까? 중독이란 무엇인가? 중독에 대한 설명을 오랫동안 많이 들었다. 중독은 도덕적 결함이다. 질병이다. 유전되는 질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나는 중독의 진짜 원인은 결국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고 믿었다. 그러다 캐나다에 갔을 때 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고 있는 소규모 비주류 과학자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연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_263쪽, 10장 〈중독의 원인에 대한 수수께끼〉 중에서

“그들을 최대한 인간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저 그들을 위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충고하지 않아요. 그저 그들과 삶을 함께하죠. 친절하면서 믿음직한 존재가 되어주려고 해요. 비위를 맞춰주는 척하다 떠나버리지 않을 사람, 그들을 버리지 않을 사람, 떠나지 않을 사람,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사람이죠.” 이런 계획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중독자들을 전혀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장소를 내준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술이나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더 빨리 죽게 되지 않을까? 포틀랜드호텔에 폭탄을 떨어뜨려 그곳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한 의사가 리즈 에번스에게 말했다. _271~272쪽, 10장 〈중독의 원인에 대한 수수께끼〉 중에서

마약 금지는 공포와 폭력을 통해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막는 방법을 바탕으로 삼는다. 반면 포르투갈의 대안은 마약은 사라지지 않으니, 폭력 대신 사람들에게 자신감, 지식, 지지 같은 내적인 도구를 주어서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는다. _376쪽, 13장 〈1974년, 혁명의 정신으로〉 중에서

출판사 서평

★★★ TED 9000만 조회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의 가장 논쟁적인 문제작

우리는 왜 마약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거듭하는가

마약과 중독을 바라보는 해묵은 시선을 뒤흔드는 도발적 문제제기

사람들은 ‘마약 전쟁’의 목적이 마약 사용을 예방하고 중독자들을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시작은 전혀 달랐다. 20세기 초, 미국이 마약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마약국은 범죄의 경중과 마약의 사용처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용자를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합법적 마약을 처방한 의사들마저 체포되는가 하면, 유명한 헤로인 중독자였던 재즈가수 빌리 홀리데이는 표적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중독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기회는 조금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가 개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방식이 ‘처벌’이라는 이름의 전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서막이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는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때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질문들을 건져낸다. 폭력조직은 왜 경찰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마약 금지법을 더 강력하게 집행하라고 청탁했을까? 왜 다른 범죄와 달리, 마약 범죄는 단속을 강화할수록 폭력 범죄율이 올라가는 것일까? 마약에 대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정책을 선택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저자는 마약으로 인해 삶이 뒤바뀐 중독자, 10대부터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멕시코의 마약상, 중독의 화학적 기전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와 생물학자, 각종 마약 복용을 비범죄화하도록 정책을 바꾼 포르투갈의 한 의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 약물 중독 문제를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처벌과 단속에 의존해온 낡은 방식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중독은 약물의 화학적 속성보다는 상실·고립·사회적 단절에서 비롯된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약 전쟁》은 요한 하리를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의 대열에 올려놓은 그의 첫 책으로, 2015년 현지에서 처음 출간되자마자 논쟁적인 문제작으로 뜨겁게 주목받았으며, 미국에서 마약에 관한 논의를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약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 vs. 마약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100년 동안 이어진 마약 전쟁의 시작, 영향, 실패를 돌아보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불법으로 분류하는 마약들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 곳곳에서 자유롭게 유통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1914년, 미국이 마약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해리슨마약법’을 통과시키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요한 하리는 100년 동안 이어진 마약 전쟁의 역사를 추적해나가며,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세 인물을 소환하여 그 어떤 범죄소설보다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그가 주목한 인물은 바로 미국 연방마약국 초대 국장인 해리 앤슬링어, 헤로인 중독자였던 재즈가수 빌리 홀리데이, 그리고 현대적인 마약 조직의 원형을 만든 마약상 아널드 로스스타인이다.

새롭게 신설된 연방마약국을 이끌게 된 해리 앤슬링어는 마약국의 불안정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마약국은 이전에 금주법(禁酒法)을 담당했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부하 직원들은 14년간 알코올과의 전쟁을 벌이다 패배한 후 의기소침해진 상태였다. 앤슬링어는 마약과의 전쟁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소수 인종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흑인들이 대마초의 영향을 가장 무시무시하게 받는다고 경고했으며, 대마초를 피우면 인종 장벽을 잇고 백인 여성에 대한 욕망이 치솟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미국 대중이 가진 유색인종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활용함으로써 마약 전쟁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은 마약 단속 정책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재즈가수인 빌리 홀리데이와 주디 갈랜드는 모두 유명한 헤로인 중독자였다. 그러나 홀리데이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녀가 흑인에 대한 잔혹한 학살을 폭로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표적수사의 대상이 되어 앤슬링어의 요원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반면 백인 여성인 갈랜드는 앤슬링어의 도움으로 중독에서 회복되는 동안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있었다.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앤슬링어는 단순히 마약을 없애고 중독자를 처벌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금주법에서 이미 그 실패를 겪었듯이, 대중에게 인기 있는 제품이 범죄화된다고 해서 순순히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 결국 마약을 금지한 것은 불법 마약의 공급과 유통을 통제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말았다. 뉴욕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로 이름을 날렸던 아널드 로스스타인은 폭력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불법 마약 사업을 유지했다. 결국 국가가 마약 사용자와 중독자를 없애기 위해 벌였던 ‘마약과의 전쟁’은 점차 범죄조직이 서로 마약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마약을 위한 전쟁’을 낳고 말았다. 이 세 사람의 삶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약 전쟁’의 본질적인 규칙이 얼마나 변하지 않았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보여준다.

마약 단속이 강력해질수록 왜 폭력 범죄는 급증할까?

마약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다

오늘날 우리는 ‘마약 전쟁’이 계속될수록 마약 관련 범죄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약 거래는 다른 범죄와 전혀 다른 논리로 작동한다. 예컨대 살인범을 대량으로 검거하면 살인 건수가 줄고, 폭력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체포하면 혐오 범죄가 감소한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사용자를 잡아들이거나 밀매업자를 체포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뉴욕시 경찰관 마이클 레빈의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장기간의 감시 끝에 맨해튼의 악명 높은 마약 밀매업자 100명을 특정했고, 단 두 주 만에 80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거래자들이 시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어왔고, 마약 거래는 곧바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단속이 오히려 폭력 범죄를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범죄조직의 핵심 인물이 체포되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조직 간의 암투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살인과 폭력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지역 사회 전체가 피를 흘리게 된다. 결국 마약 범죄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중독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유통 시장을 장악하려는 범죄 조직 간의 전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요한 하리는 마약 전쟁의 숨겨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인다. 마약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볼티모어에서는 매일 밤 총성이 울리고, 날마다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성장한다. 게다가 이런 전쟁터에서 자라난 이들이 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로 적발되면, 개인의 인생은 사실상 끝난다. 십 대 시절의 체포 기록 하나로 평생 취업에서 배제되고, 학자금 대출조차 받을 수 없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에서도 쫓겨나며, 심지어 투표권까지 박탈당한다. 어떤 이는 “어머니가 공공주택에 사시는데, 내가 마약 소지죄로 잡힌 후 찾아가기만 해도 가족 전체가 퇴거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증언했다. 현재의 정책은 중독자와 그 가족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회복의 기회를 빼앗는다. 마약 전쟁이 불러온 가장 참혹한 결과는 바로 여기에 있다. 범죄조직의 폭력은 치솟고, 아이들은 매일 밤 총소리에 익숙해지며, 한 번의 실수로 잡힌 청년들은 평생 이등 시민으로 낙인찍힌다. 중독 문제는 줄이지 못한 채, 오히려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마약은 단순히 화학물질의 중독성이 너무 강력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일까?

우리가 알던 마약 중독의 시나리오는 모두 틀렸다

요한 하리는 끝으로, 마약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처벌 중심의 정책이 유효하지 않으며, 중독은 약물의 화학적 속성보다는 아동기 트라우마·사회적 고립·상실 같은 인간적 조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약이 단순히 화학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이들은 모두 중독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는 더 이상 마약을 찾지 않았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자는 중독과 환경의 관계를 탐구한 브루스 알렉산더의 ‘쥐 공원’ 실험을 통해 단 한 순간의 약물 사용으로 ‘화학적 노예’가 된다는 중독의 시나리오는 허구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마약 자체의 중독성보다, ‘무엇 때문에 중독되기 쉬운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마약 사용자를 범죄자가 아닌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스위스는 중독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매일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는 주사 센터를 운영하며, 중독자들이 범죄나 생계 걱정 없이 직장 and 가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포르투갈은 마약 사용을 비범죄화하고, 경찰과 당국이 중독자를 체포하는 대신 상담자 역할을 맡도록 했다. 중독자들은 안전한 사용법을 배우고, 마약을 끊고자 할 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때, 국가의 목표는 오로지 ‘치료를 받도록 격려하기’다. 이러한 사례들은 마약 사용을 억제하는 처벌 중심 정책보다, 회복과 재통합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나타낸다.

《마약 전쟁》은 마약 문제를 범죄로만 다뤄온 기존의 접근이 오히려 중독자를 사회로부터 더 단절시키고 폭력의 악순환을 키워왔다고 말한다. 이 책은 마약을 둘러싼 공포와 오해 그리고 수많은 실패의 역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진지하게 제시하며, 우리가 마약과 중독에 대해 가지고 있던 해묵은 생각들을 뒤흔들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해줄 것이다.

추천의 말

“단 한 순간도 이 책에서 눈을 떼 수가 없었다.”

노엄 촘스키 | 언어학자

“뛰어난 저널리즘과 압도적인 스토리텔링.”

나오미 클라인 | 저널리스트

“손에 땀을 쥐게 한다.”

<파이낸셜타임스>

“요한 하리는 ‘글로벌 전쟁터’라 불리는 곳곳에서 이야기를 찾아내 이 책에 모았다. 이들의 증언은 한 데 모여 마약 금지 정책이 마약 사용만큼이나 많은 범죄, 폭력, 그리고 고통을 낳았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다.”

<보스턴글로브>

“요한 하리는 전례 없는 마약 정책 개혁서를 썼다. 많은 이들이 마약 금지의 폐해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해왔지만, 하리는 이를 압도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며 인간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노먼 스탬퍼 | 전 시애틀 경찰서장

“요한 하리의 책은 우리 시대에 가장 논의되지 않은 도덕적 불의 중 하나인 마약 전쟁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다. 치밀한 조사와 깊이 있는 인간적 서사를 결합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논쟁을 촉발한다.”

글렌 그린월드 | 탐사 저널리스트, 폴리처상 수상자